문화와 정치 제7권 제1호 | 2020, pp. 5-40

중국 청년세대의 토크쇼 프로그램 수용에 관한 연구: 〈강연합시다〉와 〈기파설〉을 중심으로*

딩종리** · 류웅재***

| 국문요약 |

최근 미디어를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통치성 관련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개혁개방 정책, WTO 가입, 미디어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부분적 도입 등으로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정치경제체제의 공존과 이에 기인하는 복합적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주체화 과정은 흥미롭고 중요한 학문적 탐구의 영역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 연구는 중국 청년세대에게 인기 있는 토크쇼 프로그램인 〈강연합시다〉와 〈기파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프로그램들에 드러나는 자기통치의 문화정치와 수용양식을 분석하였다. 텍스트 분석과 심층 인터뷰 결과, 두 토크쇼 프로그램은 기획의도, 출연자 선정과 형식에서 자기통치적 속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민감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특정한 지식이나 담론의 생산을 통해 일련의 자기통치의 논리와 기술을 청년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에게 특정한 주체성 양식의 틀을 제공하고 그들이 자기경영적 주체가 되도록 인도한다. 여기서 작동하는 통치성은 서구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유사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중국의 전통과 가치, 사회적 문맥을 강조하면서 청년세대에게 국가와 사회발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여타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구별되는 특이점 또한 발견되었다.

▪ **핵심어**: 중국, 청년세대, 토크쇼 프로그램, 통치성, 신자유주의

* 이 논문은 딩종리의 석사학위 논문(2020.2) 중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 rainbow2016s@naver.com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wjryoo@hanyang.ac.kr

www.kci.go.kr

I. 들어가며

19세기 중엽에 발발한 아편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독립적인 봉건국가에서 반식민지, 반봉건 국가로 전락함과 동시에 근대적 전환기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후 구국(救國)은 중국의 시대적 사명이 되었고 이를 위해 서양의 기술과 체제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었다. 중국공산당과 민주당의 협력으로 중국은 항일전쟁(제2차 중일전쟁)에서 승리했고 해방전쟁(제2차 국공전쟁) 후,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체제를 토대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하여 중국은 독립적인 국가로 세계무대에 복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초기에 중국은 소련의 계획경제를 도입하고 자립갱생이라는 이념을 표방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였다(박정동 2004, 174). 국가는 인민공사(人民公社)와 단위라는 조직을 통해 사람들의 생산, 소비, 주택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생활 전반을 철저하게 통제했고, 일률적인 분배를 실시하며 평등주의를 강조했다(국민호 1997, 101; 정종호 2005, 201; 장병옥 2012, 31).

1978년에 실시된 개혁개방 정책은 경제성장을 당시 국정 운영의 최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개혁개방 후에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농촌과 도시에서 시장지향적인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국가의 인위적 자원배분 대신 시장교환을 정착시켰다(장경섭 1995, 77). 그런데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시기는 미국과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태동하던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시장의 개방과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김도희 2009, 42-43). 2001년에 중국은 WTO에 가입했는데 이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세계화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전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는 것도 의미한다(전성흥 2004, 25). 이는 '양날의 칼'처럼 중국의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여러 사회 문제를 심화시키고 위기를 가져왔다.

계획경제체제 시기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직업을 배분했고 기업은 마음대로 직공을 해고할 수 없었던데 반해, 노동계약제, 임금제의 도입,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혁, 외국기업의 진입 등 일련의 변화에 따라 중국 경제체

www.kci.go.kr

제는 점점 유연해졌다(장경섭·조홍식 1997, 178-180). 이러한 경제체제의 유연화라는 문맥에서 중국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구직해야 하고, 특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자기계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치열한 생존경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들은 이른바 '80후', '90후'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세대들이다. 그들은 유년시절과 성장기에 국가 고속성장의 수혜와 가정의 보살핌을 받으며 '소황제(小皇帝)'로 자랐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이전 시기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윤실 2016, 7). 경제상황의 변화로 청년세대에서는 자기 성찰성과 진정성이 감소하고, 무한 경쟁 시대의 보장되지 않은 삶에 대한 우려로 우울감이 증가했으며, 생존에 대한 초조함으로 개인주의를 타협 및 수용하고 있다(고윤실 2016, 15; 방동광 2017, 368).

'댜오쓰(屌丝)'[1] 문화, '상(丧)' 문화[2]와 '불계(佛系)'[3]문화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청년들에게 환영받고 있음은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방증한다. 사회 변화와 세태를 보여주는 이러한 문화 현상을 통해 치열한 경쟁으로 만성화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청년세대가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동력을 잃고 삶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유희적 삶, 또는 절망의 늪에 빠지는 모습은 오늘날 중국의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이와 동시에, '바른 에너지(正能量)'[4]담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心灵的鸡汤)'[5]담론, 관

1) 댜오쓰(屌丝)는 하찮은 존재 혹은 '루저'를 의미한다. 사회적 지위, 재산과 주거 등 세속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댜오쓰는 사회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자 '잉여로운' 존재들이다. 청년들은 흔히 자조적으로 스스로를 댜오쓰라고 부른다.

2) 상문화(丧文化)는 청년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퇴폐, 절망, 비관 등의 정서를 표현하는 언어, 문장, 그림 등을 가리키며 청년 하위문화의 새로운 형식이다.

3) 불계(佛系)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속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뜻하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에 관심을 잃고 포기하며 피동적으로 사는 모습을 의미한다.

4) 바른 에너지(正能量)는 건강하고 낙관적이며 사람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종의 동력과 감정이며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중국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사람들을 분발시키고,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른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다.

5)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는 사람의 의지를 고무시키는 일종의 힐링(healing) 효과를

www.kci.go.kr

변 담론인 '중국몽(中国梦)'은 청년세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들이 분투와 노력을 통해 성공과 행복을 얻도록 인도한다.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상은 그 정치경제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제안한 통치성 개념과 일정한 유사성을 노정한다.

푸코는 근대 국가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를 진행할 때 국가의 역할, 기능 그리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권력의 본성과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창안했다(김기덕 2018, 14).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토대로 최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작동 하에 디지털 창의노동문화는 디지털 창의노동자들을 '자유'나 '자율'이라는 문화적 가치와 창의성을 지향 및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또한 노인담론은 독립성과 주관적 젊음을 강조하고 삶의 주인공으로서 사회경제적 주체가 되도록 유도한다. 바꿔 말해,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주체들을 기업가적인 자아로 변화시키고 있다(서동진 2009, 296; 김예란 2015; 김은준 2017).

중국은 서구와는 다른 사회주의체제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최근의 개혁개방, WTO 가입, 미디어의 발전 등의 이유로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문맥에서 이 연구는 중국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기획된 토크쇼 프로그램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해 이러한 프로그램에 드러나는 자기통치의 문화정치와 수용양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두 토크쇼 프로그램의 텍스트 분석과 수용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특정 미디어가 중국 청년세대에게 어떠한 주체화 양식의 틀을 제공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청년세대가 이러한 미디어의 수용 과정에서 현재의 사회체제나 시대적 가치에 순응, 혹은 전유를 통해 일정한 자기경영의 통치성과 기술을 획득하는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가진 언어나 문장 등을 가리킨다. 이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의 베스트셀러로 중국어로 직역하면 '마음의 닭 수프'이다. 중국에서는 이 표현이 힐링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기계발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담아 사용되기도 하는 등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www.kci.go.kr

II. 이론적 배경

1. 권력/지식, 권력, 담론, 주체

푸코가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 중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것은 주체의 윤리에 대한 것과 더불어 관련 논의의 핵심을 이룬다. 푸코는 지식의 영역이나 형성 이면에 권력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권력관계를 상정하거나 구성하지 않는 지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식을 '권력/지식'으로 정의한다(Foucault 1980; Foucault 2016, 58-59). 이러한 문맥에서 지식은 단순히 '진리'의 탐구가 아니다. 하나의 권력은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리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고 진리라는 이름으로 생산된 권력은 자신의 틀에 맞는 규율을 만들 때, 규율에 맞지 않는 것을 거짓이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든다(류웅재 2010, 50). 즉, 권력관계에 의해 구조화되는 지식은 특정한 시점에 사회에서 무엇이 소통될 수 있는지의 경계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비정상인지를 구분하는 '진리의 체계'를 이룬다(노형일·양은경 2017, 9).

푸코는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고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국민으로 만든다는 알튀세의 권력 모델을 거꾸로 뒤집어 권력관계는 사회 모든 관계 속에 스며들어 있으며 각 개인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라고 여긴다(Mills 2008, 73-76). 또한 『감시와 처벌 *Discipline and punish*』에서는 권력은 소유되기보다 행사되는 것이며, 지배계급이 획득하고 보존하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취하는 전략적인 입장의 총체적인 효과이며 피지배자의 입장을 표명해주는 효과라고 말한다. 즉, 권력은 소유물이라기보다는 전략이고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관계의 그물망이며 개인은 여러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Foucault 2016, 57, 302).

담론은 권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통로로, 담론을 통해 권력은 지배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대상의 행위를 인도하는 형태로 행사된다(류지은·윤세준·채연주 2016, 245). 또한 담론은 독립적으로

www.kci.go.kr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술들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며 내적으로 일관된 언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관행과 연관되어 이런 관행을 통해 유통되거나 배제된다(Mills 2008, 109-111). 푸코에게 있어 담론을 생산하는 것은 주로 전문적이거나 기술적 지식의 영역이다. 전문가들이 자기의 분야와 지배적 관념을 규정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서 창안된 담론은 일반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심층구조를 결정하기도 한다(마동훈 1997, 239).

푸코에게 있어 담론은 주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주체가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제도, 규율 및 전략 등의 명제들에 의해 그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종속변수에 불과하다(신충식 2010, 139). 이론적 전환 이후 푸코는 주체구성 과정에서 '자기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자기와의 관계는 개인이 자신을 어떤 주체로 인식하거나 자신을 형성하는 실천을 할 때 취하게 되는 자기에 대한 자기의 재귀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이것의 중요성은 자기에게 어떤 사회적 역할을 맡기기보다 스스로의 존재양식을 어떤 특정한 형태로 조형하는 자기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주체의 구성에서 더욱 두드러진다(이범준 2015, 27-28).

2. 자기통치와 토크쇼 프로그램

푸코는 이전의 '통치하다'라는 개념은 국가의 통치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통제, 가족과 아이에 대한 안내, 집에 대한 관리, 영혼에 대한 관리 등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었음을 추적하면서, 자신이 창안한 통치성 개념을 인간 행동을 인도하는 절차나 테크닉을 뜻하는 것으로, 즉 '품행의 인도 혹은 행실에 대한 통솔(conduct of conduct)'이라고 정의한다(박소진 2009, 16; 김기덕 2018, 14). 간단하게 말하면, 통치성은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남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통치할 것을 결정하거나 인정하는지 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류웅재 2009, 350). 1990년대 이후, 통치성 개념은 로즈(Nikolas Rose)에 의해 심리학을 비롯한 지식의 자기 통치적인 활용 측면에서 적극

www.kci.go.kr

적으로 다뤄진다. 로즈에 따르면 통치란 통제대상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김은준 2015, 41).

이러한 자기 통치적인 측면에서 통치는 윤리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주체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대의 자아는 자유의 기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 기술과 정체성의 적용을 통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수단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주체화와 종속화가 동시에 일어난다(Miller and Rose 1990, 258). 최근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통치성이라는 문맥에서 개인들의 주체성에 대한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특정한 학설, 이념 혹은 시장 본위의 국가정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할 것인가를 규정함으로써 권력에 종속시키는 새로운 주체화/예속화의 권력이다.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책임감이 있는 도덕적인 개인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개인과 하나로 융합시켜 이런 개인을 인도하고 통제하는 간접적인 기술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통치전략은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개인적 영역으로 전환시키고 사회적 책임 문제를 자기 돌봄과 자기 지배의 문제로 환원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기업가적 자아로 만듦으로써 자유로운 주체가 되고 자기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박소진 2009, 17; 서동진 2010, 48-50).

미디어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재현의 양상들이 담론의 차원으로 생산 및 유통되면서 일정한 삶의 방식을 재생산하기도 한다(김은준 2017, 158). 즉, 미디어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특정한 가치관을 재구성하는 기능을 하고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이희은 2011, 18; 조영한 2012, 39). 한 사회에서 일련의 통치성이 작동할 때 미디어는 줄곧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의 예로 최근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자기통치의 정치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가령, 김수정(2010)은 〈프로젝트 런웨이〉와 〈도전! 슈퍼모델〉을 분석한 후에 리얼리티 프로

www.kci.go.kr

그램이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책임 있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주체화시키는 자기통치의 문화실천이라고 주장한다. 이희은(2014)은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관찰 카메라를 통해 사적 영역을 감시하는 점이 자기계발 담론과 공모하여 일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사회의 체계를 갖추며 텔레비전 판 자기계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민성을 교육하는 '비밀 극장'의 역할도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의 유력한 장르 중 토크쇼 프로그램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이를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한 분파로 보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토크쇼 프로그램이 최근 다른 리얼리티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이다혜·류웅재(2016)는 〈마녀사냥〉, 〈김제동의 톡투유 — 걱정 말아요 그대〉와 같은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는 연애 상담 프로그램을 리얼리티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존의 자기계발, 힐링, 멘토링 문화와 연계되고 조응한다고 주장한다. 이희은(2011)은 토크쇼를 비롯한 버라이어티쇼가 사적인 이야기 서술을 통해 자기통치에 성실한 개인을 모범으로 삼아 권력의 개입과 사회의 보수화에 기여한다고 지적한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은 특정한 시기에 사회에서 유통되는 담론, 지식과 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주체성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지금까지 통치성 개념을 기반으로 미디어 영역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거나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대부분은 자본주의체제를 토대로 하는 사회에서 드러나는 미디어 현상에 대한 탐구에 국한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토대로 사회주의체제를 토대로 하는 중국의 토크쇼 프로그램에 드러나는 자기통치 기술과 수용양식을 통해 중국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현상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6]하고자 하였다.

---

6) 일례로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경제발전과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서구의 신자유주의화와는 구별되는 발전 과정으로 이해한다. 가령, 1980년대 이후 중국은 국가 주도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이는 서구의 신자유주의화와는 그 양상이나 범주에서 구별된다. 이는 시기적으로도 우연하게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적 요소가

www.kci.go.kr

III. 〈강연합시다〉와 〈기파설〉에 대한 텍스트 분석

이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토크쇼 프로그램은 중국 텔레비전 방송인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中国中央电视台)의 〈강연합시다(开讲啦)〉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아이치이(爱奇艺)의 〈기파설(奇葩说)〉이다.[7] 〈강연합시다〉는 2012년 8월 27일에 처음 방영되어 현재까지 방송 횟수가 300여 회를 넘었고, 〈기파설〉은 2014년 11월 29일에 처음 방송되어 현재까지 여섯 시즌이 방송되었다.[8] 텍스트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돕는 해석학적 장치이자, 사람들의 복합적인 감정 체계를 건드리고 이끌어내는 문화적 장치(김정영·이성민·이소은 2014, 54)이다. 우리는 이 두 프로그램 또한 현대 중국사회의 구성원들의 인식과 정동, 감정 구조를 재현하거나 형성하는 유효한 텍스트로 기능한다고 판단했기에 이 두 프로그램의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강연합시다〉에 대한 텍스트 분석

〈강연합시다〉의 기획의도는 "각 회에 유명한 인사를 초대하여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생활과 삶에 대한 깨달음을 공유하며 청년에게 현실에 대한 토론과 마음의 자양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연합시다〉는 청년세대를 위한 공개 수업으로 청년세대를 지도가 필요한 대상으로 삼으며 게스트들이 선생님으로서 청년세대를 가르치고 청년세대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설정한다.

〈강연합시다〉의 출연진은 진행자인 사베이닝, 한 명의 게스트, 청년대

독특하게 혼합된 중국의 혼성적인 현대화 과정, 혹은 신자유주의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병두 2011, 29).

7) 〈기파설〉은 각 시즌마다 출연진의 인원과 진행 형식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시즌 4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8) 2019년 10월 31일에 〈기파설〉 시즌 6이 방영되기 시작하였다. 〈강연합시다〉는 첫 방영 시점부터 청년세대를 위한 공개 수업을 표방했고, 〈기파설〉 역시 40세 이상의 기성세대가 아닌 90년대 이후 태어난 시청자들을 잠재적 수용자로 표방하였다.

www.kci.go.kr

표단, 그리고 현장시청자로 구성된다.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의 젊은 MC인 사베이닝은 자신의 유머와 전문성을 통해 〈강연합시다〉가 너무 가볍거나 무겁게 흐르지 않도록 조절한다. 그는 대화, 농담이나 게임을 통해 게스트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시청자의 지루함을 없애며 게스트와 청년대표단 사이의 조절자 역할을 맡고 있다. 〈강연합시다〉가 초대한 게스트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강연합시다〉는 동영상과 진행자의 대사를 통해 게스트들의 권위와 전문성을 부각시키는데, 이는 게스트들의 언술에 차등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이 생산하는 담론을 합리화시킨다. 한편, 시청자와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은 게스트들이 긴장해서 손을 비비는 미세한 몸짓, 강연할 내용을 잊어버려 난처한 표정 등을 클로즈업으로 포착하여 게스트들의 평범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청년대표단은 젊은이들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대체로 우수한 사람들이거나 나름대로 훌륭한 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자신만의 고민에 관해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고 또 적극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한 현장 시청자들의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 노트에 무언가를 기록하는 모습, 울거나 웃는 모습은 그들이 다른 출연자들의 말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언술과 내용을 수용함을 보여준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강연합시다〉는 강연과 대담을 혼합하였다. 강연은 생물학, 천문학, 지리학 등 학문적 지식보다는 게스트들이 살아오면서 얻게 된 삶의 지혜와 처세하는 방법 등 비학문적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치중한다. 그런데 모든 형태의 지식은 정치적 관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투쟁의 핵심적인 요소이다(Mills 2008, 138). 그러므로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권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정치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게스트들은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면서 강연을 이끌어 나간다. 사람마다의 경험은 다르지만, 강연을 통해 게스트들이 서술하는 자신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불우한 과거나 방황했던 시절, 그리고 노력을 통해 그것을 극복한 과정이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www.kci.go.kr

거두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우연적 요소들이나 역사적인 배경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게스트들이 창업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명성을 획득한 시절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오늘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에 열려 있던 시기였다.

개혁개방 정책 이후 40여 년 동안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와 달리 현재 중국의 경제와 사회구조는 상대적으로 고착화되어 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로 인해 '노력-성공'이라는 공식화한 이데올로기의 허점과 한계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스트들은 여전히 개인의 능동성을 최고의 가치로 강조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권면한다. 이는 자기계발 문화와 유사하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의 작동 방식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게스트들은 강연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를 진솔하게 고백하며 반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 시청자인 청년세대 또한 자기반성을 통해 발전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윤리적인 규범(화)을 통해 스스로의 통치를 유도하는 것이고 이 윤리는 개인을 권력의 메커니즘 속에서 특정 유형으로 대상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주체들을 구성한다(김은준 2012, 31).

게스트들은 삶에 대한 자신들의 깨달음을 시청자와 공유하는데 그들이 서술하는 깨달음은 역시 자기통치의 논리들이다. 그들은 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알아내고 그것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자기의 존재가치를 인지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 대한 집중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와의 비교, 엄격하고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인생은 스스로의 선택이고, 사람은 무릇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능력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략)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

www.kci.go.kr

마다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와 자기와의 비교예요."

_출처: 〈강연합시다〉 제14회 방송 中 녹취 요약

게스트들이 청년세대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격려할 때에 꿈, 이상, 소망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언급된다. 성공을 위한 노력은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이를 위한 노력은 의지, 인내, 인성, 자기계발 등의 규범적 실천을 내면화할 것을 포함한다. 또한 책임감과 건강하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도 강조된다. 여기서 책임감은 자기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나아가 국가에 대한 책임감까지 포함한다.

"저는 20년 동안 한 가지를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이를 악물고 불평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직면하는 것이에요. (중략) 어쩌면 웃음, 미소는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갈고 닦는 미소의 능력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저는 믿어요."

_출처: 〈강연합시다〉 제138회 방송 中 녹취 요약

이러한 깨달음의 기저에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마음성형을 독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팍팍한 현실을 수용하거나 순응하는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자리한다. 나아가 이는 자율적으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수행함으로써 일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라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유도한다. 〈강연합시다〉의 후반부에는 30분 정도의 대담코너가 이어지는데, 이 코너에서 청년대표단은 게스트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묻거나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과 해결방법을 질문하기도 한다. 이는 리빙스턴과 런트(Sonia M. Livingstone and Peter K. Lunt 1992)가 말하는 치유적인 형식[9]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대표가 털어놓는 고민

9) 리빙스턴과 런트는 토크쇼를 논쟁 형식, 로맨스 형식과 치유적인 형식으로 구분했다. 치유적인 형식은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삶의 고민, 어려움 등을 털어놓고 이에 대해

www.kci.go.kr

은 사회적인 문제도 포함하는데 정작 상담에서 그들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지 않고 보다 심층적이거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청년대표: "저는 국가박물관에서 해설자로 일하고 있어요. (중략) 우리 업계는 봉급이 높지 않아요. 심지어 2015년까지 한 달에 1,000위안(약 17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원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저와 같은 29살 나이의 젊은 사람이 원장님을 찾아와 자기가 이 직업을 너무 좋아하는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하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게스트(남경 박물관 원장): "실은 난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자친구가 생겨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원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물관은 좋은 곳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에 따라 원래의 일자리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생활방식을 찾아야 해요."

진행자: "젊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죠."

_출처: 〈강연합시다〉 제269회 방송 中 녹취 요약

청년대표는 현재 박물관 해설자라는 직업의 급여가 너무 적다는 문제를 토로하며 자신은 물론 유사한 처지에 놓인 다른 청년들을 대신해 게스트에게 질문한다. 게스트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 인해 별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일자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을 사람들의 개인적 소망과 커리어 개발의 차원으로 프레이밍(framing)한다. 이는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에게 적합

전문가나 상담자가 조언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자를 치유하는 방식이다.

www.kci.go.kr

한 직업과 생활방식을 찾기를 독려하고 사회나 타자가 아닌 바로 자기자신을 변화시켜 현실에 적응하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적이다.

진행자는 게스트와 유사하게 청년들에게는 기회와 선택의 가능성이 많다고 위로의 말을 전하며,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바꿔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복잡다단한 사회적 문제들을 개인화한다. 이를테면 그들은 취업난과 주택난, 심화되는 중국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또 고민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해 자신만의 대안적 가능성을 찾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마음가짐의 변화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강연합시다〉가 개인의 구체적 고민과 삶의 어려움들을 탈맥락화하거나 연관된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 그리고 자기통치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기파설〉에 대한 텍스트 분석

〈기파설〉의 기획의도는 "중국인이나 중국어 화자 중에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말솜씨가 뛰어나며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파설〉을 제작한 회사의 창립자이자 〈기파설〉에 출연한 마동(马东)은 "토크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중 하나이다. 직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기파설〉을 기획하게 된 동기이다"라고 프로그램의 첫 방송에서 강조하였다. 〈기파설〉의 또 다른 기획의도는 출연진들의 말하는 방식과 사고방식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파설〉의 출연진은 진행자, 멘토, 게스트, 선수, 그리고 현장시청자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허중(何炅), 멘토들인 마동, 차이캉용(蔡康永), 뤄전위(罗振宇)와 장췐링(张泉灵)은 모두 방송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방송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진행자와 멘토로 출연시키는 것은 토크쇼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을 전달할 때 강

www.kci.go.kr

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기파설〉에서 진행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며 진행자보다 멘토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멘토들은 리더의 역할과 선생님의 역할을 맡아 선수들의 토론이 끝난 후에 자신의 팀을 대표하여 마무리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결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러므로 멘토들은 선수들의 멘토일 뿐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의 멘토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대중문화 속에서 멘토는 미디어를 통해 사견을 전달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이은아·류웅재 2014, 167).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멘토들의 말에는 필연적으로 차등적 가치가 부여되고 이로써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파설〉은 각 회에 연예인을 게스트로 출연시키는데 게스트들의 출연은 팬들의 유입을 통한 시청자 확보와 프로그램의 오락성 정도만을 담당할 뿐이다. 〈기파설〉의 주요 인물은 토론하는 선수들이다. 〈기파설〉의 선수들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인데 그들 또한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그중에는 이미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토론분야의 유명인도 있다. 더불어 그들은 화려한 스펙과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로 청년세대에 속한 그들은 자기의 독특한 성격과 세상물정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그리고 뛰어난 토크 능력을 보여주고 우승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각 회에 출연하는 현장 시청자들은 토론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토론의 승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파설〉은 약 10분 정도의 대담코너로 시작한다. 대담코너에서 진행자와 멘토들은 게스트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재미있는 화제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는 시청자들의 관음적 욕망을 충족하고 오락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파설〉의 주요 코너는 토론코너인데 토론의 주제는 짧은 애니메이션이나 시트콤을 통해 제시되며 일반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토론 주제 설정에 있어서 사회적이거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으며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통적인 토크쇼와 다르게 〈기파설〉은 리얼리티 쇼의 대표적인 장치인

www.kci.go.kr

경쟁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각 회의 우승팀을 결정하고 각 시즌마다 'BB King'이라는 우승자를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토론하기 전에 각 팀의 토론상황을 촬영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개인 인터뷰를 통해 출연자들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출연자들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기파설〉은 전통적인 토크쇼가 아니라 여러 장르를 혼합한 리얼리티 토크[10]라고 말할 수 있다.

〈기파설〉은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지만 선수들의 발언에 대한 특정한 규칙도 없고 정규적인 심사기준도 없다. 선수들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승을 결정하는 것은 토론 전후 현장시청자의 투표 수 변화 추이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관점이나 방식으로 현장시청자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는 무한 경쟁 시대에 스피치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흐름, 그리고 창의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의 필요성과 관계가 깊다(김영은·윤태진 2013, 172).

선수들이 주제에 대해 토론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사적인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다. 선수들은 사적인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자신이 얻게 된 생각이나 교훈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그 내용은 자기통치와 관련이 깊다. 예를 들면 제1회에 "싱글 맘이 되고 싶은가?"를 주제로 토론할 때 동청(董婧)은 찬성의 입장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다.

> "불행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싸울 때, 아이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엄마는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 아빠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중략) 우리 엄마는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일하기 전에는

10) 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특히, 최근 중국 방송의 유력한 포맷과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형식을 차용하고 혼합하는 '장르 혼합'의 경향을 나타내며, 이러한 문맥에서 토크쇼 또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www.kci.go.kr

부모님과 살았고 사회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삶의 무게를 혼자서 떠안은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연극배우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우리 엄마는 극장에서만 연출했는데 이혼한 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시골까지 내려가서 연출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저에게 알려준 것은 연약한 여성이라도 자신의 아이 앞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저를 키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저를 키우는 과정에서 업무경험을 쌓아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이에요. 엄마는 사람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 엄마가 싱글 맘이 되려 했던 결정은 저에게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가르쳐주었어요. 이런 타협하지 않는 태도는 제가 어려움과 유혹에 부딪칠 때 계속 원하는 방향으로 걸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_출처: 〈기파설〉 시즌 4 제1회 방송 中 녹취 요약

동청은 어머니가 이혼해서 싱글 맘이 되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결혼생활이 불행해지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용감하게 싱글 맘이 되라고 호소한다. 그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일련의 삶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생활방식과 행복을 찾는 태도이다. 그의 어머니는 이전에 큰 고생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경험한 적도 없었지만, 이혼 후 자신의 노력을 통해 직면한 삶의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포부를 실현하였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대중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대중이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꾸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자기계발 주체의 주체화 과정은 푸코가 강조한 대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주체화 테크놀로지가 바로 자기 테크놀로지이다. 자기 테크놀로지는 행위자에게 자기주도성이라는 강력한 진리를 부여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기획할 수 있다는 자유

www.kci.go.kr

를 제시한다(김영은·윤태진 2013, 177). 〈기파설〉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자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자기돌봄과 자기지배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한편, 선수들은 사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를 반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제9회에서 "부모님이 양로원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를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할 때 한 출연자는 아버지가 판매원에게 속아서 불법 건강제품을 구매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는 아버지의 핸드폰을 본 후에 판매원이 더우면 더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돌보아주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를 살뜰히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평소에 아버지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는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함께 반성할 것을 호소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문제의 근원으로 설정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회적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대신에 도덕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피상적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멘토들은 선수들과 다르게 개인적인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지만 그들의 토크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교육적인 특성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멘토인 차이캉용은 "〈기파설〉에 참여하는 100명의 현장시청자와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토론의 결과, 즉, 당신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토론의 결과는 〈기파설〉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결론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어서 멘토들의 발언은 필연적으로 프로그램이 토론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며 오늘날 중국사회의 주류적인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IV. 심층인터뷰를 통해 본 토크쇼 프로그램의 수용

1.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절에서는 청년세대의 토크쇼 프로그램 수용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www.kci.go.kr

〈표 1〉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

대상	나이	성별	직업	거주지	학력	인터뷰 시간
1	27	여	공무원	중국 장쑤성 쿤산시	대학 졸업	2019.09.25. 22:10~23:00 50분
2	35	남	회사 매니저	중국 산시성 시안시	대학 졸업	2019.09.23. 22:10~23:50 1시간 40분
3	23	여	진학 준비생	중국 쓰촨성 루저우시	대학 졸업	2019.09.21. 22:35~23:20 45분
4	22	남	대학생 창업자	미국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시	대학 재학 중	2019.09.23. 00:05~00:50 45분
5	18	여	고등학생	중국 충칭시	고등학교 재학 중	2019.09.23. 1:00~2:00 1시간
6	23	남	대학원생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	대학원 재학 중	2019.09.19. 22:45~23:55 1시간 10분
7	21	남	대학생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대학 재학 중	2019.09.20. 20:10~21:00 50분
8	25	남	대학원생	중국 쓰촨성 청두시	대학원 재학 중	2019.09.21. 11:25~12:15 50분
9	33	여	회계원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대학 졸업	2019.09.21. 16:00~17:50 1시간 50분
10	30	여	회사원	중국 베이징	대학 졸업	2019.09.22. 18:30~19:40 1시간 10분
11	26	남	교사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대학 졸업	2019.10.15. 19:40~20:50 1시간 10분
12	32	여	의사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대학원 졸업	2019.10.12. 20:35~21:30 55분
13	19	남	대학생	중국 후난성 창사시	대학 재학 중	2019.10.12. 22:00~23:10 1시간 10분
14	35	남	심리상담사	중국 저장성 사오싱시	대학 졸업	2019.10.16. 10:00-11:00 1시간
15	21	여	대학생	중국 지린성 창춘시	대학 재학 중	2019.10.13. 17:25~18:30 1시간 5분
16	32	남	IT기술자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대학 졸업	2019.10.13. 22:25~23:45 1시간 20분
17	24	여	디자이너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대학 졸업	2019.10.13. 21:30~22:20 50분
18	31	남	은행원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	대학 졸업	2019.10.15. 22:10~22:50 40분

www.kci.go.kr

〈강연합시다〉와 〈기파설〉을 즐겨보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우선 연구진의 지인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다음으로 〈강연합시다〉와 〈기파설〉의 관방 웨이보(官方微博)에 댓글을 남긴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답장을 준 사람들을 위챗(微信) 친구로 추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조건에 맞는 사람만을 대상자로 정했다. 또한 대상자 표집 과정에서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해 기존의 대상자에게 다음 대상자를 추천받기도 하였다. 〈강연합시다〉와 〈기파설〉의 시청자를 각 10명씩 선정하기로 하였고 대상자 9와 대상자 10은 두 토크쇼를 모두 즐겨보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총 인터뷰 인원수는 18명이다. 대상자 1~10은 〈강연합시다〉의 시청자이고 대상자 9~18는 〈기파설〉의 시청자이다.

대상자와의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인터뷰를 수행하기 전, 대상자들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눈 후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16일까지 이뤄졌으며 대상자들과 음성통화나 영상통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보장에 관해 설명하고 대상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함으로써 분석을 위한 텍스트를 확보했다. 추가 질문의 경우, 대상자들에게 이메일로 질의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인터뷰 시 대상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였고 반구조화된 질문을 준비했다. 또한, 대상자들이 인터뷰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2. 〈강연합시다〉에 대한 수용

우선 인터뷰 대상자들의 시청 원인을 살펴보면, 많은 대상자들이 대학 시절부터 〈강연합시다〉를 보기 시작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생활이 재미없다고 느끼거나'(대상자 1) '막막한 상태에 처해 있었기'(대상자 5, 7) 때문이다. 그들은 〈강연합시다〉를 통해 '삶의 방향'(대상자 5, 7)이나

www.kci.go.kr

'삶의 동력'(대상자 3, 5)을 찾으려고 한다.

또한 상당수의 대상자들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강연합시다〉를 본다고 진술했다. 현재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대상자 4는 중국 내 다양한 영역의 발전 상황을 알고 사람들과의 이야깃거리를 얻기 위해 〈강연합시다〉를 시청하고, 중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대상자 6은 프로그램을 통해 각 영역의 유명인에 대해 알아보고 학식을 얻기 위해 〈강연합시다〉를 본다고 했다. 또한 〈강연합시다〉의 시청은 대상자들에게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고'(대상자 9) '시야를 넓히는'(대상자 7) 효과를 준다고 했다. 나아가 자기가 처해 있는 힘든 상황을 게스트들이 성공 과정에서 겪은 곤란과 비교한 후에 자기가 겪은 어려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게스트들의 스토리에서 위로를 받고 삶의 동력을 얻는 대상자들도 있었다.

> 저는 지금 고3이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강연합시다〉의 내용을 기록한 책을 꺼내서 훑어봐요. 게스트들의 성장과정을 보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게스트들의 경험을 들은 후에 그들이 지금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곤란을 겪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도 버틸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작은 어려움을 버틸 수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갈 동력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대상자 5).

〈강연합시다〉의 시청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가 부여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얻게 되었다는 대상자도 적지 않았다. 이는 프로그램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권력과 관련이 있다. 현대 권력은 특정한 부정적인 사고나 행위를 못하게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나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긍정이나 권면의 형태로 행사된다(마동훈 1997, 241). 〈강연합시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금지하기보다는 권력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유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 저는 지금 중급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중급 회계 시험

www.kci.go.kr

은 어려운 시험이라서 친구들은 다 시험을 보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해요. 이럴 때마다 저는 게스트들의 스토리로 저를 격려하거나 마음을 바로잡아요. 대단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도 마음을 정하고 참을성 있게 제가 가고 싶은 길을 묵묵히 가야 해요(대상자 9).

일부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반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태도를 바꾸고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시키려는 자세를 보인다. 그들은 자기와 자기의 삶을 문제시하고 스스로 고통이 수반되는 자기반성을 한 후, 혹은 그 과정에서 자기의 존재 양식을 일련의 특정한 형태로 교정하거나 조형하는 자기성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공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여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공부해야 해요. 저는 전 회사에 다닐 때 여유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저는 게임만 했어요. 〈강연합시다〉와 다른 책들을 본 후에 저는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회사에 다니는 8시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퇴근한 후의 5~6시간에서 생기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대상자 2).

또한, 〈강연합시다〉를 본 후에 대상자들은 변화된 스스로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상자 10은 스스로가 내면에서부터 바뀌어 마음이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고 대상자 4는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지고 인생의 목표를 돈을 버는 것에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했다.

강연하는 게스트들은 대부분 국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강연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루 세 끼를 위해서만 이 세상에 부유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좀 촌스럽게 들리겠지만 저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요. 원래 저는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www.kci.go.kr

있는지 밖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저는 제 운명을 국가의 운명과 연결시키게 되었어요(대상자 4).

대상자들은 '게스트들의 성공 방식을 복제할 수 없고'(대상자 1) '게스트들이 특정한 해답을 제공해 주지 않지만'(대상자 5) 그들의 말은 앞길을 밝게 비추어 주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므로, 이를 참고해 자신의 갈 길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그들은 자기자신을 지배하는 인간으로서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게스트들이 말해주는 의견을 참조할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자기의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하지요. 그들은 등대이고 목표이며 우리에게 대략적인 방향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해요(대상자 8).

대상자들은 〈강연합시다〉를 관영매체인 CCTV가 제작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기저에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권력이 작동함을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련의 저항이나 냉소를 표출하거나 이를 둘러싼 모순에 대한 성찰성을 견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러한 권력의 작동을 필요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들은 현재 중국의 청년세대가 연예인과 연예계, 오락 프로그램에 과도한 관심을 기울인다고 지적하면서 〈강연합시다〉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러한 상황을 바꾸거나 개선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일례로 '현재 청년세대가 올바른 지도와 가치관이 필요한'(대상자 4)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거나 청년세대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을 되찾아야 한다'(대상자 9)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연합시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런닝맨〉과 같은 오락 프로그

www.kci.go.kr

램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고 자아를 잃지 않도록 도와줘요. 사람들은 눈앞의 쾌락에만 연연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가 겪게 될 곤란을 준비하도록 해야 해요(대상자 10).

대상자들은 〈강연합시다〉를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시청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낸다. 많은 대상자들은 게스트를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게스트들이 강조하고 있는 '노력을 통한 성공'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대가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환경도 달라졌어요. 나만의 공부방법을 그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고, 다만 그들의 태도 정도만 참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출세했던 시기는 방치되었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다시 시행되기를 기다리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금의 노력으로 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21세기는 인재 경쟁의 시대잖아요. 그들이 젊었을 시기에 경쟁은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엄청난 스펙을 쌓아야 하는 시기지만요(대상자 7).

그 외에 그들은 '질문과 대답에 고정적인 패턴이 있다'(대상자 9) 의심하고 '예민하거나 논쟁적인 질문이 거의 없고 예리한 질문에 게스트들이 잘 대답하지 못하며'(대상자 8) '격려의 말이나 별 소용이 없는 답을 줄 수밖에 없어서'(대상자 6) '실용적인 의견을 들을 수 없고 빈말만 듣게 된다'(대상자 7)고 지적한다.

3. 〈기파설〉에 대한 수용

대상자들이 〈기파설〉을 보게 된 계기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기파설〉을 지속적으로 시청한 주요 원인은 〈기파설〉이 재미와 도움을 줄 수 있기

www.kci.go.kr

때문이다. 선수들이 유머러스하게 토론하기 때문에 재미를 줄 수 있고 '대립되는 시각으로 문제를 토론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말해줄'(대상자 17) 수 있고 '기분을 전환'(대상자 16)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대상자 15) 효과도 있고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일에도 도움이 된다는 진술이 있었다.

> 〈기파설〉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말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제가 하는 일은 기술 지원이에요. 제가 모든 데이터를 다 나열해가며 고객님께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고객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대신에 일상적인 예로 바꿔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고객님들이 더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기파설〉이 저에게 준 가장 큰 도움은 저의 말하기 방식을 풍부하게 만들고 평범하고 재미없는 묘사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예로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에요(대상자 16).

그 외에, 많은 대상자들은 〈기파설〉이 '자신의 생각을 풍부하게 하고 시야를 넓히'(대상자 13)거나,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친구보다 유용하다'(대상자 14)고 말한다. 〈기파설〉을 보고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언어의 활용이나 표현에 대한 흥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기파설〉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욕구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분석하려는 욕구를 자극'(대상자 16)한다고 여겨 언어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의 말하기 방식에 신경을 쓰는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했다.

> 예전의 저는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자기표현을 하려는 열정도 없었고 자기표현의 능력도 없었어요. 〈기파설〉의 출연진들이 그렇게 말을 잘 하는 것을 본 후에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말하기에 대한 열정을 자극했어요(대상자 17).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은 원래 자기의 생각에 집착했던 것을 반성하고

www.kci.go.kr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입장을 바꿔 상대방을 이해하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대상자 18)고 말하고, 이런 변화는 '인간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대상자 11)고 인식하였다. 또한 이런 변화를 '자신의 포용력이 증가하고, 스스로가 성장한 것'(대상자 9)으로 여긴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인지하며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성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봐왔는데, 남자들에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때로 남자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제 생각이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으니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이렇듯 저는 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대상자 9).

언어능력과 사고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파설〉이 대상자들의 내적인 자아에 미치는 영향이다.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는 대상자 9는 프로그램에서 자신과 비슷한 성격의 선수를 본 후에 스스로의 의지를 견지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대상자 17은 한 선수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놀라는 동시에 자극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한계를 돌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파설〉을 시청한 후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삶의 방식을 탐색하거나 자기를 변화시키는 등의 행위는 통치성을 내재화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기파설〉이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것도 아니며'(대상자 10), 그저 사람들에게 많은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되돌아보고 '저마다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대상자 17)으로 인식했다. 권력의 효과인 주체화는 주체가 자기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스스로를 지배하는 자기의 테크놀로지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태희원 2012, 164). 대상자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기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대상자들이 자

www.kci.go.kr

기 테크놀로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그것은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제기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관점은 옳고 그름으로 나뉘지 않아요. 그들은 한 문제의 여러 면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되지요. 인생에는 많은 선택이 있는데, 마지막 선택은 결국 자기가 해야 해요(대상자 18).

대상자들은 〈기파설〉을 '고민에 빠져 삶의 동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바른 에너지를 전달하는'(대상자 10) 것과 '일상생활의 굴레에 갇혀 생각이 마비된 젊은 사람을 깨우치는'(대상자 12) 것으로 여기고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힐링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파설〉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로 대표되는 이전의 힐링 담론들과는 상당한 정서적 차이가 있다고 진술했다. 그들은 이전의 힐링이나 자기계발 담론이 '상업화되었고 신선하지 않으며'(대상자 18) '믿을 수 없는 성공학'(대상자 11)이라 비판하는 반면, 〈기파설〉은 '사람의 신경을 건드려서 살아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대상자 14) '혈액 속에 주입하는 것과 같은 강한 효과가 있다'(대상자 18)며 프로그램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기파설〉을 즐겨본 대상자들은 프로그램의 수용 과정에서 이것이 결핍하거나 부재하는 부분에 관해 창의적이며 비판적 독해, 구체적으로 다양한 충돌이나 오인, 의미화 및 재의미화, 탈코드화 등 다기하고 복잡한 수용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례로 토론을 진행할 때 일부 출연자(선수)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러 비참함을 끌어내어 이야기하는'(대상자 18) 측면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또한 〈기파설〉이 중국사회의 산적한 많은 문제와 현안들을 충분히 비판적이며 깊이 있게 토론하기보다,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끊임없이 일상화하거나 미시화함으로써 '다양하고 무거운 사회적 문제들과 그 원인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대상자 12)는 것을 지적한다.

> 사회적인 화제를 깊이 있게 토론하면 조금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www.kci.go.kr

> 번질 수 있으니까 그들은 애초에 깊이 있게 토론하지 않고, 많은 문제를 꺼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회 계층의 변화, 빈부격차 등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았어요. 또한 대도시와 작은 도시에 대한 토론에서, 대도시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집도 살 수 없고 차도 살 수 없지만 반대로 대도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은 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니까요. 그들은 민감한 이슈에 위험하게 도달하지 않거나 이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수준에서 토론을 진행해요. 토론의 방향을 개인의 가치관, 믿음, 취미와 같이 사회안정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요(대상자 14).

그 외에 대상자 12는 〈기파설〉의 상품화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피력했다. 〈기파설〉은 최근 말하기 능력이 현재 사회에 필요한 것임을 간파하여 책도 발간하고 수업도 개설했는데 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 기술적이라서 일상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학습과 관련된 상품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라 지적했다.

V. 나가며

이 연구는 중국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드러나는 자기통치의 문화정치와 수용양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텍스트 분석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텍스트 분석 결과, 〈강연합시다〉와 〈기파설〉은 기획의도, 출연자 선정과 형식에서부터 자기통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강연합시다〉는 청년세대를 지도와 힐링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며 〈기파설〉은 청년세대들을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이 발전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출연자 선정에 있어서 〈강연합시다〉는 사회 각 영역의 전문가를 게스트로 초대하여 그들이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 〈기파설〉은 방송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 선수들을 지도하며 우수한 젊은이들로 구성된 토론 선수들은 끊임없이 자기계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www.kci.go.kr

〈강연합시다〉와 〈기파설〉은 다른 구성 형식을 가진다. 〈강연합시다〉는 강연과 대담을 혼합하였다. 강연코너에서 게스트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주도면밀한 노력을 통한 성공을 강조한다. 더불어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계발하는 사람이 되도록 유도하거나 자기반성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유하는 삶에 대한 깨달음 또한 자기통치의 논리들인데, 일례로 대담코너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개인적인 차원에만 집중한다. 이는 청년세대가 서술하는 문제를 탈맥락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기파설〉은 대담과 토론을 혼합하였다. 대담코너에서 연예인인 게스트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루며 이는 시청자들의 관음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도 한다. 토론코너에서 〈기파설〉은 사회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접적인 토론 주제로 설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토론할 때 선수들은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자기실현을 독려하거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유도해 피상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그 외에 출연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또한 대중이 개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을 계발하도록 유도한다.

두 프로그램은 현대사회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재현되거나 작동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지식과 담론의 생산을 통해 청년세대를 특정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중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 유사하게, 정부의 사회 안전망, 복지 및 제도적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개입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기경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인도한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두 프로그램에서 서구적 자유주의와는 구별되는 중국적 특색 또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프로그램은 청년세대가 경쟁력을 갖춘 독립적인 개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동시에, 중국의 전통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발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특히 〈강연합시다〉에서는 청년세대 개인의

www.kci.go.kr

발전을 국가의 운명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는 청년세대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는 원인이 된다.

심층인터뷰 결과, 많은 시청자들이 〈강연합시다〉를 시청하는 원인은 막막한 상태에 처해 있어 프로그램을 통해 방향이나 삶의 동력을 찾기 위함이었다. 시청자들에게 〈강연합시다〉는 지식을 제공하고, 고민을 해결하고, 시야를 넓히고, 위로해 주는 효과가 있다. 그들은 게스트들의 고백과 스토리에 영향을 받아 보다 낙관적이며 적극적으로 자기만의 생활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자기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보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연합시다〉가 구체적인 해답을 제공하진 않을지라도, 게스트들이 길을 안내해주고 있으므로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현했다.

〈기파설〉의 경우, 시청자들은 재미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청하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도움은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시야를 넓히고, 문제해결과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파설〉을 시청한 후에 언어구사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존 사고방식을 반성하고 바꾸기 시작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습득하고 자발적으로 삶의 방식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파설〉의 토론이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자기주도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들은 전통적인 힐링 담론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반면, 〈기파설〉의 색다른 힐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중국 청년세대의 토크쇼 프로그램 수용 양상은 오늘날 토크쇼 프로그램이 효율적인 통치성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에 일정한 영향을 받거나, 혹은 이를 능동적으로 전유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중국사회는 정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심화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토크쇼 프로그램은 청년세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기계발하는 자율적인 주체성 양

www.kci.go.kr

식의 틀을 제공하고 그들이 자기를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주체가 되도록 인도한다.

최근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자본주의체제 국가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이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반해 사회주의체제를 토대로 하는 중국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사회와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요소의 확산, 미디어 콘텐츠에 있어 글로벌포맷 수입 및 이의 모방과 변용의 과정에서 토크쇼 프로그램에 내재된 자기통치적 요소들을 질적이며 수용자 연구를 통해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초투고일 : 2020. 1. 31
논문심사일 : 2020. 2. 19
게재확정일 : 2020. 2. 28

www.kci.go.kr

참고문헌

고윤실. 2016. “당대 중국 ‘청년의 소멸’과 정서적 구조의 변동.”『중국문화연구』 제34집, 1-21.

국민호. 1997. “[특별기획: 중국의 전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국의 정치문화-유교의 역할.”『비교사회』 통권 제1호, 94-125.

김기덕. 2018. “신자유주의, 관리주의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직.”『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 논문집(5월)』, 11-27.

김도희. 2009.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중국의 개혁 담론: 금융위기 이후 최근논의와 관련해서.”『중소연구』 제33권 3호, 39-63.

김수정. 2010. “글로벌 리얼리티 게임쇼에 나타난 ‘자기통치’의 문화정치.”『한국방송학보』 제24권 6호, 7-44.

김영은·윤태진. 2013. “한국사회 내 프레젠테이션 문화의 출현과 그 의미.”『한국소통학보』 제20호, 150-187.

김예란. 2015. “디지털 창의노동.”『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69호, 71-110.

김은준. 2012. “신자유주의 시대 교육담론과 주체형성: 한국의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5. “초기 힐링담론의 자기통치프레임과 담론효과.”『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74호, 38-71.

_____. 2017. “미디어가 표방하는 고령화 사회의 바람직한 노인상.”『한국언론학보』 제61권 3호, 157-188.

김정영·이성민·이소은. 2014. “‘나’의 성장과 경험으로서 연애의 재구성.”『미디어, 젠더 & 문화』 제29권 3호, 45-81.

노형일·양은경. 2017. “비폭력 저항 주체의 형성.”『한국방송학보』 제31권 3호, 5-41.

류웅재. 2009. “절충적 세계화와 국가의 담론정치: 한국 문화정경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제53권 5호, 340-359.

_____. 2010. “담론분석과 정치경제학의 조우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언론과 사회』 제18권 4호, 37-73.

류지은·윤세준·채연주. 2016. “조직의 통제기제로서의 창의성 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경제와 사회』 통권 111호, 237-268.

마동훈. 1997. “문화연구에서의 ‘권력’.”『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33-244.

박소진. 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경제와 사회』 통권

www.kci.go.kr

제84호, 12-39.
박정동. 2004. “WTO 가입과 대외경제 정책의 변화.”『전환기 중국사회 1』. 서울: 도서출판 오름.
방동광. 2017. “스파이 소재 ‘주선율’ 드라마를 통해 본 2000년대 중국 사회의 정서구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7호, 358-370.
서동진. 2009.『자유의의지, 자기계발의의지』. 파주: 돌베개.
_____. 2010.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문화과학』 통권 제61호, 37-54.
신충식. 2010. “푸코의 계보학적 접근을 통한 통치성 연구.”『정치사상연구』 제16집 2호, 131-166.
이다혜·류웅재. 2016. “청년세대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수용에 관한 연구: ‘쿡방’과 ‘집방’을 중심으로.”『한국소통학보』 제15권 2호, 181-221.
이범준. 2015. “자기와의 관계: 주체성과 권력에 대한 후기 푸코의 새로운 사유.”『문화와 정치』 제2권 1호, 23-43.
이은아·류웅재. 2014. “멘토 권하는 사회: 신자유주의 시대, 멘토는 어떻게 생산되는가?『한국소통학보』 제24권, 141-179.
이희은. 2011. “텔레비전 버라이어티쇼의 사적인 이야기 서술.”『언론과 사회』 제19권 2호, 2-48.
_____. 2014. “관찰 혹은 자발적 감시.”『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8-2호, 211-248.
장경섭. 1995. “중국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사회보장체계의 전환.”『경제와 사회』 제26권, 76-106.
장경섭·조홍식. 1997. “[특별기획: 중국의 전환] 중국 도시 기업개혁의 사회정책적 성격: 고용 및 노동복지 변화와 북한에 대한 함의.”『비교사회』 통권 제1호, 166-199.
장병옥. 2012.『중국학개론』.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전성흥. 2004.『전환기 중국사회 1』. 서울: 도서출판 오름.
정종호. 2005. “현대 중국사회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호구제도 개혁을 중심으로.”『현대중국의 이해: 정치·경제·사회』. 파주: 나남.
조영한. 2012.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읽기: “국면적인 경제 읽기”를 제안하며.”『커뮤니케이션 이론』 제8권 2호, 22-64.
최병두. 2011. “데이비드 하비의 지리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한국학논집』 제42집, 7-38.
태희원. 2012.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자기계발로서의 미용성형 소비.”『페미니즘연구』 제12권 1호, 157-191.

www.kci.go.kr

Foucault, Michel 저. 오생근 역. 2016.『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파주: 나남.
Mills, Sara 저. 임경규 역. 2008.『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서울: 앨피.

Foucault, Michel, and Colin Gordon eds.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Brighton: Harvester.
Livingstone, Sonia M., and Peter K. Lunt. 1992. "Expert and Lay Participation in Television Debates: An Analysis of Audience Discussion Programme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7(1): 9-35.
Miller, Peter, and Nikolas Rose. 1990. "Governing Economic Life." Mike Gane and Terry Johnson eds. *Foucault's New Domains*. New York: Routledge.

www.kci.go.kr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Talk Show by Chinese Young Generation:
Focused on <Voice> and <U can U BIBI>

Ding, Zhongli
MA, Hanyang University
Ryoo, Woongja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ABSTRACT |

A series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including media studies. Although China's economy is based on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the elements of neoliberalism have gradually entered China due to the recent Reform and Opening-up Policy, the development of the media industry, and also the utilization of capitalist economic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investigate such changes in China, we selected two talk show programs, <Voice> and <U can U BIBI> for analysis. We focused on analyzing the cultural politics of self-governmentality, depicted in the shows and the actual acceptance by the young viewers. As a result of textual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Voice> and <U can U BIBI>'s planning intention, performer selection, and formats are containing some aspects of self-governmentality. Although these shows do not explicitly deal with sensitive social issues, they provide the young generation with a self-disciplined identity framework, through the production of certain knowledge and discourses.

While watching these talk shows, the young Chinese viewers tend to internalize the mindset of self-governmentality, which means they should attribute the cause of complex social issues and problems

www.kci.go.kr

to themselves, and change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self-help. While the governmentality working here shares some similarities to that of the West, at the same time, the former emphasizes Chinese traditional values, ideology, and social context, and gives the young generation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 Keywords: China, young generation, talk show program, governmentality, neoliberalism

www.kci.go.kr